

유럽 '겨울 에너지 대란' 대비 안간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후폭풍 샤워는 2분만·사우나는 여럿이 에너지 절감·추가 확보에 사활

중부 유럽 슬로바키아에서는 샤워를 2분 내로 끝내라는 지침이,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전국민이 즐겨하는 사우나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스페인 앞 바다에는 최근 액화 천연가스(LNG)를 실은 운반선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장사진을 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며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이 겨울 문턱인 11월에 접어들자 이처럼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공급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시절을 방불케 하는 대책들이 무려 반 세기 지난 현 시점에 유럽에 소환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카드를 꺼내든 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 전체 가스 공급의 45%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가스가 전쟁

이후 10% 이하로 뚝 떨어지자 유럽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겨울을 별탈 없이 나기 위해 나라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유럽 전역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가정과 사업체, 공공건물에서 실내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소비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안쓰는 가전은 콘센트에서 빼놓을 것도 권고했다.

덴마크의 경우 세탁물은 건조기 대신 빨랫대에 걸어 말릴 것을 권고했고, 슬로바키아는 샤워는 2분 내로, 양치 후 헹구는 물은 1컵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인구 550만명에 사우나는 300만개를 갖춘 '사우나 천국'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하고, 더 짧게, 더 가끔, 온도는 더 낮춰 에너지를 아낄 것을 정부가 호소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주요 주체이기도 한 유럽 각국 정부도 권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의 난방을 줄이고, 가로등을 끄고, 공영 수영장 문을 닫는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 노력과 함께 각국이 비상 에너지 비축에 나서 가스 저장고가 꽉 찬 덕분에 당초 걱정과는 달리 유럽이 큰 혼란없이 내년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시모네 탈리아피에트라 연구원은 "유럽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러시아(에너지)와의 완전한 분리를 그럭저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사용량의 7% 선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일부 나라는 여전히 곤란에 처할 수 있고, 최근 프랑스와 체코 등에서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펼쳐진 것에서 보여지듯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 불안이 잠복해 있는 만큼 각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저장고 대부분을 채운데다 예년에 비해 초겨울 날씨가 훨씬 따뜻해 비축된 가스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여전히 추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스페인인 저장고 용량이 다 차 더 이상 하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NG를 실은 운반선을 자국 앞바다에 계속 대기시키고 있고, 독일은 문을 닫으려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국과 중동 등에서 수입한 LNG를 원활히 들여오기 위한 LNG 터미널도 새로 구축 중이다. /연합뉴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선 패배 선언할까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 상 주재 두스 캄푸스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1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 도중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40명 사망 인도 현수교참사 인재 정황 '속속'

납은 케이블 교체 않고 페인트칠만

약 1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 현수교 붕괴 참사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는 2일(현지시간) 경찰과 지역 당국을 인용해 다리 붕괴와 관련한 심각한 부실 정황에 대해 잇따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부 구자라트주 모르비 지역에서는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약 140명이 숨졌다.

이 다리는 140여년 전에 건설돼 매우 낡았으며 최근 7개월간 보수공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재개장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보수업체인 오레바는 재개장에 앞서 다리에 페인트칠을 하고 닳아버린 케이블의 표면에 윤만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도 법원 자료 등을 인용해

보수업체는 다리의 바닥만 바꿨을 뿐 케이블은 교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 대피나 구조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오레바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다리를 재개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개장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보수공사는 오는 12월까지로 예정됐으나 오레바는 디월리 등 축제 기간에 맞춰 서둘러 개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적했다.

이 다리는 모르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입장 요금을 내야 다리에 올라갈 수 있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 몰린 사람 수가 적정 인원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125~150명 수준인데 다리 위에는 400~500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WHO,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나라별 대응 수준 큰 차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다.

WHO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보건 긴급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대응에 진전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파가 진행 중이고 나라별 대응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숭이 두창이 의료 취약 지역에 더 영향력을 주

기 쉬운 점, 감염 환자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회피할 가능성, 그에 따른 추가 전파 위험성 등도 고려 요인이 됐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에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PHEIC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 소아마비까지 합쳐 총 3가지다.

WHO는 지난 7월 원숭이 두창에 대해 PHEIC를 선언했다. 당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PHEIC를 선언한 바 있다. 선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총선 승리 후 연설하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덴마크 총리 겸 사회민주당 대표인 메테 프레데릭센이 2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의회에서 당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 진영은 전체 179석 중 90석을 갖게 돼 프레데릭센 총리가 새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영국 콜린스 사전 올해의 단어 '영구적 위기' 선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뒤이은 핵위기,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달린 지구촌에 올해는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영국 콜린스 사전이 'permacrisis' (영구적 위기)라는 합성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permanent' (영구적인)와 'crisis' (위기)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키위', '스포츠타', '파티게이트' 등을 제치고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콜린스 사전은 이 단어를 '불안정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AFP는 이 단어가 꼽힌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적 격변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처한 혼란상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콜린스 라방'의 알렉스 비크로프트 국장은 "이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올해가 얼마나 끔찍한 해였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